

베트남, 신형 다목적 대잠 호위함 건조

'26. 8. 13.(목), 하노이 무역관

□ 개요

- 8.10일 베트남 국방부 산하 조선기업 Song Thu Corporation社가 베트남 해군과 협력해 다목적 대잠 호위함 건조 착공식을 개최
- 이번에 건조에 착수한 다목적 대잠 호위함은 베트남이 현재까지 자체 건조한 전투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현대적인 함정으로 평가됨
- 특히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함정을 설계·건조하는 한편, 함정에 탑재되는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



베트남 해군 관계자의 신조 함정 모형 관람 (자료원: 현지언론)

□ 상세 내용

- Song Thu Corporation社는 네덜란드, 독일,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의 발주 사양에 따라 다양한 선박을 설계·건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
- 주요 설계·건조 선종으로는 순찰선, 예인선, 구조·예인선, 유조선,

수색·구조선 등이 있음

- 이번 함정 건조 사업에는 Song Thu Corporation社와 베트남 해군을 중심으로 군산업·통신그룹(Viettel), 장비·무기·군수 기자재 연구·생산·제조·설치 관련 기관들이 공동 참여할 예정
- 함정의 설계·건조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및 주요 장비의 연구·개발과 탑재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- 해당 함정은 향후 36개월 이내 건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능동위상배열(AESA) 레이더, 대공미사일 및 첨단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할 예정
- 베트남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해군 전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
- 러시아산 킬로(Kilo)급 잠수함과 게파르트(Gepard)급 호위함 등을 도입한 이력이 있음

□ 무역관 의견

- 이번 다목적 대잠 호위함 건조 착수는 베트남의 함정 자체 설계·건조 역량 강화 및 방산 분야 국산화 확대 사례로 평가됨
- 특히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레이더, 미사일, 전투체계 등 주요 탑재 장비의 자체 개발 및 기술 확보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 해군 함정 현대화 사업에서 현지 방산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우리 기업은 베트남의 해군 현대화 및 방산 국산화 수요를 고려해 함정용 전자장비, 레이더·센서, 통신체계, MRO, 부품 공급 및 기술협력 등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베트남은 국내 방산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 장비 조달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이번 12월 하노이에서 제3회 국제방위산업전시회(Vietnam International Defence Expo)*를 개최할 예정임. 우리

기업들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베트남 방산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* 베트남 최대 방산 전시회로 격년 개최

□ 정보원 및 일자

○ Vietnam Government Electronic Newspaper / '26. 8. 11.

- 링크:

<https://xaydungchinh sach.chinhphu.vn/dong-moi-tau-ho-ve-chong-ngam-da-nang-tau-chien-lon-nhat-hien-dai-nhat-tu-truoc-den-nay-119260810204040482.htm>

<끝>